

도약의 달

선교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August 2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송 / 526장 - 목마른 자들이 (통일찬송 316장)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봉 헌 / 최내권 집사, 홍정임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455장 - 주님의 마음을 붙 받는자 (통일찬송 507장) 성경말씀 / 창세기 1:1-12 하나님이 가라사대.../그대로 되어.../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선포 / 장영현 전도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장영현 전도사

* 표는 모두 일어 합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3:7-9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오릅니다.

1.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선교주일** 오늘은 선교 주일이고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4. **토요새벽 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5.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오늘부터 오전 10:15에 모입니다.
(인도: 장영현 전도사)
6. **방역 update** 30일 부터 일리노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7.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9월 한달 점심 친교 후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8. **노동절 수련회: 9/5(주일)-9/6 노동절 오전** 신앙을 점검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주 안에서 휴식을 누립시다.
8/9월의 사역 - 선교 주일(29) 만남과 나눔 주간(8/29-9/4)
성장과 성숙 주간(5-11) 노동절 수련회(9/5-6)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9월 한달)

♥ 8/9월 생일축하 ♥ 정줄리(8/30) 이정운(9/30)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29	9/5	9/12	9/19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8/29	9/5	9/12	9/19
	최내권집사/홍정임집사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종이란?** / 요나 1:1-2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편견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 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만 순종하려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는 판단의 기준, 순종의 조건은 없는가? 나를 지키는 자존심, 타인에 대한 편견, 이기심 등이 순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자.

하나님이 가라사대...그대로 되어...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세기 1:1-12

1.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시작

2. 말씀의 불순종은 죽음의 시작

3.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선물

4. 말씀의 순종은 영생의 시작

교회와 사역

예배

은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자가 은혜 못 받는 이유

예배는 은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은혜받는 예배의 조건이 많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마음의 위로, 짝 찬 예배실.

하지만 예배 성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 높이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는 컵이 주전자의 물을 받아 내려고
주전자 아래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은혜가 채워진다.

예배는 낮아진 하나님과 그를 높이는 성도의 만남이다.

나의 예배가



삶과 신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필수 자세

우리는 흔히 진심이 담기면 괜찮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함정이다. 진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니다. 또 하나, 흥분과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의 원칙은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이 아닌 온전한 자세이다. 그러면 진심과 감동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은 감정보다 깨진 심령을 원하신다.

우리는 찬양 부르며 조금 감동 받고, 내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겨서 위로 받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게 은혜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삼하 6:13).

참 기가 막힌 장면이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데, 여섯 걸음 가서 제사를 드린다. 감사해서 언약궤를 옮기다 말고 감격하여 그 앞에 고꾸라져 엎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격이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며, 이것이 깨어진 심령(broken spirit)이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란 것이다.

예배의 기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다. 깨진 심령의 소유자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슴을 찢으며 운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정말 은혜가 넘쳤던 예배를 돌이켜 보면 예배 전체가 화려하고 진행이 수려하게 잘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라 힘든 길을 돌파하여 예배의 현장에 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울던 때다. 하나님은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시편 145:1

‘상한 심령’(broken spirit)은 파산한 영혼, 부도난 영혼을 말한다. 섬기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드리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깨닫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가? 예배는 내 능력껏 펼치는 것이 아니다. 바닥에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다.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슴을 찢는 것이 예배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심이나 감정보다 참된 겸손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진심보다 참된 겸손이 우선이라는 말에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진심만 전해지면 된다고 배우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방법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는 것은 진심은 전할지 모르나 절대로 겸손의 모습은 아니다. 결국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 진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배려가 중요한가? 배려가 있고 마음이 통하면 진심이 전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심정이나 주님의 요구, 주님의 생각은 둘째 문제고 내 진심만 전해지면 된다고 착각한다. 이런 교제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종종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배’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면 나의 의도와 본심이 무엇인지보다 우선 예배의 대상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필요와 그분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란 말이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무절제와 개인주의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진심만 전해지면 되지’의 폐해이다. 그렇다 보니 겸손이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겸손의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 다니엘 김, 『완주자』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